



전주대, 초복 맞이 유학생 삼계탕 나눔 행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초복을 맞아 12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김민수)의 후원으로 7개국 50여 명의 유학생에게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행사를 후원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는 방학 중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로와 격려하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자 마련했다. 캄보디아 유학생 엠바나(경영화)씨는 "초복을 맞아 유학생들을 생각해 주고 도와주는 분들 덕분에 한국 생활이 즐겁고 감사하다"며 "무더운 여름 삼계탕을 먹으며 건강을 지키는 의미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수 본부장은 "고향을 떠나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임재운 약학대학장 발전기금 전달

우석대학교 임재운 약학대학장이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2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임재운 약학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임재운 약학대학장은 "우리 대학교와 약학대학의 발전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자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남천현 총장은 "대학을 위해 선뜻 기금을 출연해 준 임재운 약학대학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출연된 기금이 대학과 약학대학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



신태인농협, 정읍고추 융복합사업단 역량강화교육

정읍 신태인농협 정읍고추 융복합사업단(단장 황취중 신태인농협 조합장 이하 '사업단장')은 지난 11일 정읍시 제2청사에서 정읍시 고추 재배능가 교육을 대상으로 고추 병충해 방제 및 수확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고추재배교육에서는 정전기 정읍시농업기술센터장과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 정읍시농협(정읍·황토현·샘골·칠보·대인·신태인) 고추재배반장 그리고 황취중 사업단장 외 130여명의 고추 재배능가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신태인농협 정읍고추 융복합사업단은 정읍고추 미래성장 융복합사업과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총 사업비 30억원(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 등)으로 고추재배능가 교육 등 역량강화, 연구개발 및 홍보와 마케팅 외 시설현대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읍시 지역특화품목인 고추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갖춰 고추의 부가가치 창출과 정읍고추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북 농식품역량개발원 전문용 박사를 초빙하여 정밀한 고추 병해충 방제와 세척 건조 등 수확기 관리에 대하여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능가의 큰 호응을 받았다. 임민택 신태인농협 고추재배반장은 "급차 교육으로 관수 시설의 효과와 정밀한 탄저병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황취중 사업단장은 "정읍시 고추 재배능가들은 이미 최고의 고추 전문가이지만 이번 고추재배교육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정읍 내장산 단풍고춧가루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해 고추 재배능가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성 기자

“리더십 · 시민의식 함양에 소중한 경험 될 것”

전주대 국토대장정... 9일간의 일정 돌입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1~19일 제주함을 시작으로 서귀포까지 약 120km 국토대장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대장정은 지난해와 다르게 이동 거리가 반으로(약 120km) 줄어드는 대신 ESG 활동과 역사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겸해 진행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행사는 제주 올레길 해변과 해수욕장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plogging; plock a up) ‘줍다’의 스페어) + jogging(달리기)) 활동과 함께 분리수거, 플라스틱 재활용, 산책로 주변 정리 및 환경 정화 관련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국토대장정 기간 내 보이는 캠퍼스 폐기물은 가져오고 따뜻한 마음만 놓고 올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에 공감하며 현대차 동차와 커넥티비티 등도 함께 뜻을 같이하고 ESG 활동을 지원한다. 일정 마지막 날에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4.3 사건에 대한 역사교육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갖고 9일간의 국토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배지훈 총학생회장은 “국토대장정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아름다운 제주도의 ‘아름’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다”며 “맑은 제주도 모습과 그 이면에 숨겨진 아픔들, 많은 폐기물 해양 쓰레기를 치우고 역사교육도 함께 받으며 이번 국토대장정이 단순히 걷는 것 외에도 나눔과 봉사 교육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을 통해 강한 체력과 정신력,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성, 역사교육을 통한 평화와 인권 등 함께 다양한 가치의 누리며 리더십과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진배 총장도 직접 학생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고 응원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을 함께 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김제시 송영에 동장은 지난 6일부터 김산단지 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경로당 27개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송영에 동장은 어르신들에게 부임 인사와 함께 계속되는 장마에 피해는 없는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 등 경로당 이용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시설 내부부품 꼼꼼하게 점검하며 경로당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경로당 어르신들은 송영에 동장을 반기며 “바쁜 일정에도 경로당을 방문하여 일일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김산동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송영에 동장은 “어르신들에게 반갑게 맞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로당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송영에 김제시 김산동장, 소통행정 경로당 방문

김제시 김제시 송영에 동장은 지난 6일부터 김산단지 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경로당 27개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송영에 동장은 어르신들에게 부임 인사와 함께 계속되는 장마에 피해는 없는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 등 경로당 이용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시설 내부부품 꼼꼼하게 점검하며 경로당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경로당 어르신들은 송영에 동장을 반기며 “바쁜 일정에도 경로당을 방문하여 일일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김산동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송영에 동장은 “어르신들에게 반갑게 맞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로당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기전대 산학협력단, ‘무주군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사업’ 경진대회 개최

무주군은 지난 6월 29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 ‘무주군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사업’ 최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군이 창업지원 희망자 신청을 받은 결과 올해 17명이 창업을 희망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청자들은 지난 6월 8일부터 23일까지 창업관련 교육 80시간(기본교육40시간 특화교육 40시간)을 이수했다. 창업교육은 창업과 기업가정신, SNS활용 마케팅, 창업 트렌드 분석, 상권분석 및 이해 등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편성했다. 무주군은 80%이상 이수한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들의 사업에 대한 발표심사와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창업의지 등을 평가한 후 최종 대상자를 선발했다. 올해 창업 희망자들은 한복·규방공예, 애견카페, 천마재



배, 무주굿즈 등 무주의 특산물을 살리며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업종의 창업을 준비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기전대 축구부 1~2학년 대학축구 연맹전 8강 진출

전주기전대학 운동재활과 축구부는 강원도 태백에서 열린 제18회 1~2학년 대학축구 연맹전 에서 8강에 진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기전대학 축구부는 조별 예선에서 우승 후보인 건국대학을 3:2로 누르고 폐조의 스타트를 보였다. 이 중 후반 90분에 터진 양태연의 극장 골은 이번 대회에 대한 전주기전대학 축구부의 투지와 집념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이후 두 번째 배재대의 경기를 4:1로 난타하며 마지막 남은 남부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종민 교수(운동재활과)는 “우리팀 선수들의 기량과 열정이 어떤 팀과 붙어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근성으로 뚫어졌다”며 “8강에 진출한 만큼 더 집중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70세 이상 어르신에 목욕권 지원

남원시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목욕권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받으며, 2023년 하반기에도 70세이상 어르신 총 1만 3,514명에게 16만2천여의 목욕권을 배부하면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목욕권은 1인 연 12개월 상·하반기로 나눠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배부되고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담당공무원 및 마을 이·통장이 방문 배부하며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84%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르신들의 사업 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장애인과 김현옥 과장은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을 당부하며,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목욕권 사업뿐만 아니라 1인 1가구 소통행정 등을 지속 추



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전이수산 육천인재속 학생들에 메주장어 지원

순창군 적성면에 소재한 전이수산(대표 이정)이 육천인재속 학생들에게 380만원 상당의 순창메주장어 80kg을 제공했다. 지난 11일 이정 대표는 육천인재속에 방문해 전하연을 대상으로 순창메주장어 구이와 한방백숙을 직접 제공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씨는 평소 장애인연합회,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에 지속적 후원하는 등 순창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내 양성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2006년부터 총 9회에 걸쳐 3,600만원을 육천 장학금에 장학금을 기탁해 지역주민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정씨는 “그동안 육천인재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오고 있었다”며 “이번에 청정순창에서 정성을 들여 키운 메주장어를 복날에 맞춰 보냈으니 맛있게 먹고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운봉읍,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남원시 운봉읍에서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며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건강교실은 동해마을과 산덕마을 경로당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동해마을은 6월 9일부터 7월 28일까지, 산덕마을은 7월 4일부터 8월 27일까지 주 1회(동해 매주 금, 산덕 매주 화)씩 총 8회 운영한다. 교실에서는 치매 이해, 치매 예방 운동 인지 영역 자극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관리를 돕고 있으며, 프로그램 전후 치매 선별검사, 노인 우울척도 검사를 실시해 유소견자는 치매인식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상담도 이루어진다. 한편 양재우 운봉읍장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이어가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약사회 · 여약사회,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초복 후일

정읍시 약사회 · 여약사회(회장 정옥린)는 초복을 맞이해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생닭 200마리를 전달했다.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후원된 생닭을 정성껏 조리해 장애인복지관 식당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증식으로 제공했다. 정옥린 약사회 · 여약사회장은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는 폭염으로 무더위가 더 심해 장애인들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무더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장애인들이 지치지 않고 건강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무더위에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올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력 회복에 좋은 닭을 제공해준 정읍시 약사회 · 여약사회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다양한 연계를 통해 함께 소통하는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